31. [인터뷰] ‘종의 기원’ 작가 정유정

“글을 쓰는 3년 동안 나는 사이코패스였다”

지난 4월 초 어느날 밤이었다. 소설가 정유정씨는 3년 만에 펴내는 신작 소설 ‘종의 기원’ 원고를 탈고한 후 집에서 자고 있었다. 교정본 원고를 출판사에 보낸 뒤 홀가분한 마음에 술 한잔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새벽 2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아버지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어이없고 느닷없는 부고는 슬픔이 아니라 황당함으로 다가왔다. 얼굴 한 번 못 보고, 작별인사 한마디 못하고 떠나보낸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죽음은 쇠망치처럼 작가의 머리를 때렸고, 그제서야 작가는 ‘유진’에게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3년간 빠져 있던 소설의 주인공에서 겨우 헤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다.  
  
유진은 ‘종의 기원’의 주인공인 사이코패스다.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의 운명이 예정돼 있던 20대 청년. 인구의 3% 정도인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상위 1%에 해당하는 포식자다. 정신의학자들이 ‘프레데터(predater)’라고 부르는 순수 악인이다. 핏빛 가득한 이 소설에서 유진은 같이 살던 어머니와 입양한 형, 그리고 자기가 선천적 악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어릴 때부터 약을 처방해준 정신과 의사인 이모를 차례로 죽인다.  
  
지난 5월 30일 서울 합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정유정씨는 유진과 같은 사이코패스에 대해 “감정과 도덕을 관장하는 전두엽에 불이 안 들어오는 별종”이라고 설명했다. “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전통적 심리학은 교육과 환경, 가족 간의 사랑 등에 의해 인간의 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의 진화심리학은 악인들은 유전자적으로 다르게 태어난다고 봅니다. 충동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게 사이코패스들이죠.”  
  
  
악인의 탄생기  
  
유진의 1인칭 독백으로 전개되는 ‘종의 기원’은 이 사이코패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설이다.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악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악인의 탄생기’다. 작가는 “유진이라는 절대 악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고 했다. 소설 속 유진의 1인칭 독백은 상당 부분 상식의 잣대로 보면 거짓이다. 소설 속에서 스스로 고백하듯 그는 정직성에서 문제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話者)다. 그에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변론, 자기합리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이라도 갖다붙일 수 있다. 살인을 한 후에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고 독자를 향해 자기 변론의 성을 쌓아올린다. 작가는 이런 유의 악과 악인을 진단하는 소설 속 핵심적인 한 구절을 상기시켰다. 유진이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려고 결심하면서 꺼낸 말이다. “도덕이라는 것은 말이 되는 그림을 그려 보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실제 도덕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보이게 말을 만들어내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 작가의 성찰이다.  
  
소설은 작가에게 성공을 안겨준 전작 ‘7년의 밤’이나 ‘28’ 못지않게 흡인력이 대단하다. 악인의 내면을 숨죽이며 따라가다 보면 섬뜩한 살인 장면들과 마주친다. 독자를 빨아들이는 흡인력과 속도감은 전작들 못지않지만 밀도는 더 강해졌다. 작가 특유의 생생한 묘사들이 피비린내 나는 장면들과 함께 더 짙어졌다. 작가에게 “밀도가 전작들에 비해 더 높아진 게 단순화된 구도 때문인 것 같다”고 하자 작가는 “의도적으로 구도를 단순화시켰다”고 했다. “바로 전작인 ‘28’은 한 도시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 소설은 플롯을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지가 저에게는 도전 과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 인간의 밑바닥까지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느냐가 과제였어요. 주인공 하나만 깊이 판다고 작정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단순화해야 했습니다. 공간도 아파트로 한정했고, 주변인물도 몇 사람만 등장시켰죠.”  
  
사실 작가 정유정은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의 ‘문화 권력’이 되었다. 그는 현재 불황에 시달리는 출판계에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로 통한다. 전작 ‘28’ 이후 3년 만에 나온 ‘종의 기원’은 정유정 팬들이 이제나 저제나 고대하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년이나 기다리게 해서인지 팔려나가는 속도가 전작에 비해 더 빠르다는 게 출판사 측의 말이다. 출판사 ‘은행나무’ 이진희 주간은 “‘28’은 한 달 만에 5만부가 나갔는데 ‘종의 기원’은 일주일 만에 8만부가 팔렸다”고 했다.   
  
  
출간 1주일 만에 8만부  
  
이번 ‘종의 기원’에서 작가는 자신을 기다리던 독자들을 악인의 내면으로 빠뜨리려고 작정했다. 그러기 위해 작가는 스스로 악인에 빠져들어갔다. 스스로 사이코패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나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면 어쩌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이코패스에 대해 쓰기 위해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윤리와 교육을 가능한 던져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쉽진 않았지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간단하고 분명한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도덕과 감정도 개입이 안 되죠.”  
  
글을 쓰기 전 치밀한 공부와 체험을 통해 완벽한 사실성을 추구해온 작가는 이번 소설에서도 그 같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소설 속에서 수영선수로 설정된 주인공의 물에 대한 애착을 이해하기 위해 난생처음 수영도 배웠다. 이와 함께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읽었고, 사이코패스들과 접해본 프로파일러도 찾아다녔다. 국내에서는 ‘살인마 유영철’ 외에는 논문이 많지 않아 외국의 사이코패스에 대한 글들을 찾아서 읽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소설에는 현실에서 차용해온 부분도 적지 않다. “유진이가 살인을 하면서 듣는 반 젤리스의 ‘낙원의 정복’이라는 헤비메탈 음악은 실제 유영철이 살인 전에 흥분을 고조시키기 위해 들었던 음악입니다. 물론 거짓 설정도 있죠. 소설에서는 유진이한테 어릴 때부터 ‘리모트’라는 약을 먹이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통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이코패스는 통제가 안 됩니다. 격리밖에는 방법이 없죠.”  
  
작가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라고 다 살인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살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소시오패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예 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범죄형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머리가 비상한 1% 정도의 부류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들은 살인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마약중독처럼 살인도 잦아져야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국내 사이코패스 중 최고는 정남규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4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교도소에서 목숨을 끊었죠. 당시 그가 죄책감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봤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쾌감을 느꼈다는 거죠.”  
  
  
“악을 알아야 악에 맞선다”  
  
물론 사이코패스에게도 예외는 있다. 유영철이 실제 자신의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듯이 사이코패스에게도 감정을 느끼는 대상은 있다. 소설에서는 입양한 형인 해진이 유진에게는 그와 같은 존재다. 결국은 죽이고 말지만 주인공은 노을과도 같은 애틋함을 느끼는 해진이를 죽이기까지 망설인다. 작가는 “유진이와 해진이는 결국 하나에서 분리된 존재”라며 “선한 해진과 악한 유진이 보통 사람에게는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작가는 극소수 별종인 사이코패스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 걸까.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청바지와 청재킷 차림으로 활달하게 얘기하고 자주 웃던 작가는 이 질문을 던지자 심각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내면의 악에 대해 들여다봐야 합니다. 선사시대 태풍이 불면 그저 두려워하고 견뎠지만 어느 순간부터 물음표를 붙이고 연구를 하면서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의 악을 들여다보고 알아야 악에 맞설 수 있습니다. 악을 이해할 수 있어야 악을 회피할 수 있죠. 밝은 것, 좋은 것만 보면 인생의 반만 보는 것입니다.”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신자였다고 한다. 창조론이 익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설이 기댄 것은 최근의 진화심리학적인 성과들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진화해 왔고, 그 과정에서 선과 함께 악도 진화했다. 작가는 ‘종의 기원’ 에필로그에서 “인간은 살인으로 진화했다”고 썼다. 이 불편한 말이 무슨 의미인가. 작가는 이렇게 썼다. “진화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버스는 그의 저서 ‘이웃집 살인마’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 것도, 선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생존하도록 태어났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진화 과정에 적응해야 했고, 선이나 악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에 선과 악이 공진화했으며, 그들에게 살인은 진화적 성공, 즉 경쟁자를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작가에게 데이비드 버스의 이론이 너무나 단정적이고 불편하다며 “차라리 ‘인간은 사랑과 화해로 진화했다’고 써야 악인이 판치는 현실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단호한 반박이 돌아왔다. “만약 사랑과 화해로 인간이 진화했다면 현실의 먹이사슬이 이렇지는 말아야 합니다.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되죠. 하지만 현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나요. 사랑과 화해 운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위론이고 도덕일 뿐이죠. 인간은 생존을 목표로 하는 유전자 기계일 뿐이고, 여기에 도덕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작가는 전작들에서도 항상 악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해 왔다. 작가는 “내가 불편한 얘기를 해왔고, 그런 내 소설을 읽은 독자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감동적이고 밝고 행복한 얘기를 잘 쓰는 작가들이 있지만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남한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하다. 남한테 치졸하고, 남을 미워하고 왕따시키는 인간의 어두운 심리를 파고들다 보니 사이코패스까지 와 버렸다”고 했다.  
  
작가가 이번 소설에서 1인칭 사이코패스를 등장시킨 것은 전작에서의 악에 대한 탐구가 미진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전작에서 3인칭 악인들을 통해 뭔가를 얘기해 보려고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작가는 소설 에필로그에서 “‘내 심장을 쏴라’에선 점박이고, ‘7년의 밤’에서는 오영제로, ‘28’에서는 박동해로, 매번 다른 악인을 등장시키고 형상화했으나 만족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목이 마르고 답답했다. 그들이 늘 ‘그’였기 때문이다”고 썼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스스로 악인이 돼 그 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실행에 옮긴 후 자신의 오만을 깨달았다고 한다. 소설을 썼다가 허물기를 세 번씩 하는 시련을 맛봤다는 것이다. 이야기 자체를 세 번씩 부순 건 ‘내 심장을 쏴라’ 이후 처음이었다는 게 작가의 말이다. 작가는 “이번이 다섯 번째 소설이니까 좀 능수능란해져야 하는데 처음이랑 똑같다”며 “늘 멍청하게 쓰는 스타일이다.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한다”며 한숨지었다.

“나는 그냥 이야기꾼일 뿐”  
  
그의 소설은 모두가 치밀한 구성이 힘이다.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매끄럽게 얽어낼 수 있는지 감탄할 때가 적지 않다. 작가가 말하는 노동집약적 작업의 요체가 궁금해 “집을 다 짓고 쓰느냐, 쓰다 보면 집을 짓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거푸집만 짓고 쓴다”는 답이 돌아왔다. “못 박을 자리까지 정하고 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거푸집은 짓고 씁니다. 일단은 공간을 장악해요. 진짜로 스케치북에 내가 구상하는 소설의 공간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번 소설의 경우 소설 배경인 군도신도시와 아파트 내부를 실제 색연필로 그려봅니다. 그렇게 공간이 장악되고 나면 인물을 세우면서 형식을 장악하지요. 이게 끝나면 쓰기 시작합니다.”  
  
본래 그는 광주광역시의 집이 작업실이었지만 ‘유명인’이 된 후 집이 더 이상 ‘감옥’이 못 된다고 했다. 누군가가 부르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그래서 구상이 서고 글쓰기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어딘가에 처박힌다고 했다. 이번 소설을 쓰면서는 고등학교 때 일본에 유학을 간 아들의 거처에 가서 3개월간 밥을 같이 해먹으며 초고를 완성했고, 나머지 4개월은 출판사에서 마련해준 남해의 한 절벽 위 펜션에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그에게 최근 맨부커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작품에 대한 평을 구하자 “한강 작가는 문장이 아름답고 시적인 게 강점”이라고 답했다. 그에게는 문학적인 찬사를 한몸에 받은 한강의 소설과, 대단한 상업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마따나 ‘이렇다할 정유정론(論)도 별로 없는’ 자신의 소설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할까.  
  
“저는 소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각하게 하는 지적인 소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제 소설은 후자입니다. 독자들이 읽는 순간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문장이 그림을 보는 순간처럼 바로 와닿아야 하죠. ‘시체가 있다’가 아니라 시체를 독자들에게 안겨줘야 합니다. 결국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설이 달라집니다. 지적인 소설을 저처럼 쓰면 안 되죠.”  
  
작가는 “일부 평론가와 독자들이 영화화를 의식해 그렇게 생생하게 쓰느냐는 의구심도 갖지만 그건 아니다”며 “나같이 소설을 쓰려면 시각이 가장 압도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게 강해서 그런 의구심이 들지만 나는 오감, 심지어 육감까지 다 동원해서 글을 쓴다, 유머도 꽤 들어 있다”고 했다.  
  
작가는 순수문학, 상업문학을 굳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그가 멘토로 꼽는 소설가들은 미국 공포소설의 대가인 스티븐 킹과 추리문학의 대가인 레이먼드 챈들러, 그리고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이다. 별반 영역의 구분이 없고, 다만 이야기꾼을 좋아할 뿐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소설을 문학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 저한테 ‘네 소설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이야기’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고, 앞으로의 희망도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겁니다. 평론가들이 무시하고 상업소설이라고 해도 할 수 없죠. 신경 안 씁니다. 진짜로요.”  
  
그는 “작가는 해답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냥 깃발 하나 꽂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와서 한번 보라는 거죠. 그게 소설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 기분 나쁜 문제를 던진다는 것뿐인데, 저도 독자들한테 당신 소설 읽어서 행복하고 좋다는 말을 듣고야 싶지요. 하지만 그 문제는 타협이 잘 안 됩니다.”   
  
그는 “대중이 원하는 방향성을 따라가는 소설에는 도전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아마 다음 소설은 국가적인 악, 사회적인 악을 주제로 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